

시 정 질 문 서

【김원재 의원】

1. 폐교 등 국내 자매도시 부지를 활용한 수련시설 확충방안과 관련하여

- 우리 부천의 인구밀도는 km^2 당 16,074명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고 공원녹지 조성율도 1인 대비 4.84m^2 로 WHO 권고기준인 9m^2 는 물론 전국평균 6.56m^2 에도 훨씬 못 미치는 매우 열악한 여건임에 따라 그린벨트 등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 수련시설을 확충하는 일은 어려운 현실이며, 열악한 시의 재정여건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토지 등을 매입하여 건립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각도로 수련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임.
- 따라서 국내 자매도시와의 협의를 통해 폐교 등의 부지를 매입하거나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수련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?

2. 조각의 거리 이전과 관련하여

- 시민들에게 예술적 분위기를 선사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 후문 계남큰길 변에 조각의 거리가 조성(2004년)되어 예술적 가치가 있는 12개의 조각작품이 설치되어 있으나, 시민 이용이 그리 많지 않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며, 중동대로변에서 외곽 순환도로변과 흥천길 변에 5.5km의 시민의 강주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볼거리가 설치되어 명실상부한 부천의 명소로 가꾸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임.
-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각작품을 감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더불어 시민의 강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조각의 거리에 설치된 조각작품들을 시민의 강 주변으로 이전할 용의는 있는지?
그리고 향후 시민의 강 주변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은 있는지?